

# 뉴질랜드 농업환경속에서 한인 농업의 성장\*

조성호\*\* · 이상울\*\*\*

본 연구는 1991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뉴질랜드 한인 이민자들이 선택한 직업인 농업을 중심으로 어떻게 직업으로서 농업을 택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고 적용해 나가는지를 분석한다. 전통적 농업사회였던 시기에 이민이 농업활동으로 이어진데 비해서 뉴질랜드의 이민은 동경하던 다양한 삶의 질의 추구에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뉴질랜드의 농업환경의 재구조화와 관련 뉴질랜드의 농업을 간략히 살펴보고 한인들의 생업으로서 농업을 택한 것은 현지에서 경제활동을 모색하다가 가장 적합한 직업과 거주지를 동시에 고려한 결과 농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또한 그들의 직업이 농업 국가인 뉴질랜드의 농업환경과 밀접히 관련되고, 뉴질랜드인의 도시 근교 원예업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농장의 보급과 승계의 결과로 이해되어진다.

주요어 : 국제적 이동, 뉴질랜드, 오클랜드, 농업, 소규모 농지

## 1. 서론

### 1) 연구목적과 방법

국제적 인구이동의 연구에서는 이주자들이 국내적 인구이동에 비해 매우 다른 사회적·문화적 환경에 접하기 때문에 그들의 적응과 동화과정이 관심이 되어왔다. 해방 이전의 우리 나라 민족의 이민은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의 러시아, 중국으로 초기이민(혹은 유민)을 비롯하여 미국 하와이 사탕수수밭 노동자로의 이민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이민은 민족의 수난과 생활의 어려움과 같이 하고 있다. 해방 이후에는 미국, 중남미, 유럽, 호주, 캐나다 등으로 국제이동이 있었고, 현재는 30대를 중심으로 한 이민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960년대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의 이민은 그 목적이 뚜렷한 농업이민이었다. 그런데 해당지역의 여건이 농업에 종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이주

한 한인들은 농업을 포기하고 대부분 도시로 이주하였다(뉴스피플, 1999). 이에 비해 1990년대부터 한인들의 해외이민은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고, 자녀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단순히 경제적 이유 이외 다른 삶의 질을 동경해 이주하는 경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지리학자들에 의한 뉴질랜드에 관한 연구는 뉴질랜드의 대학에서 지리학과에 관한 연구(김영성, 1994), 뉴질랜드 지형 특색(김종욱, 1998), 뉴질랜드 한인의 생업에 관한 연구(윤홍기·임석희, 1997)등을 들 수 있다.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뉴질랜드에 대한 중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1990년대의 뉴질랜드 한인 이민자들은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로 높은 학력과 기술 그리고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며 새로운 사회에서 보다 나은 삶의 질 모색이 이민의 큰 동기가 되었다. 1991년 이후 점수제 이민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1993년부터 연간 2,000~4,000명 사이의 인구가 증가해 2000년도 현

\* 이 논문은 1999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해외파견교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대구가톨릭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 대구가톨릭대학교 지리교육과 전임강사

## 뉴질랜드 농업환경속에서 한인 농업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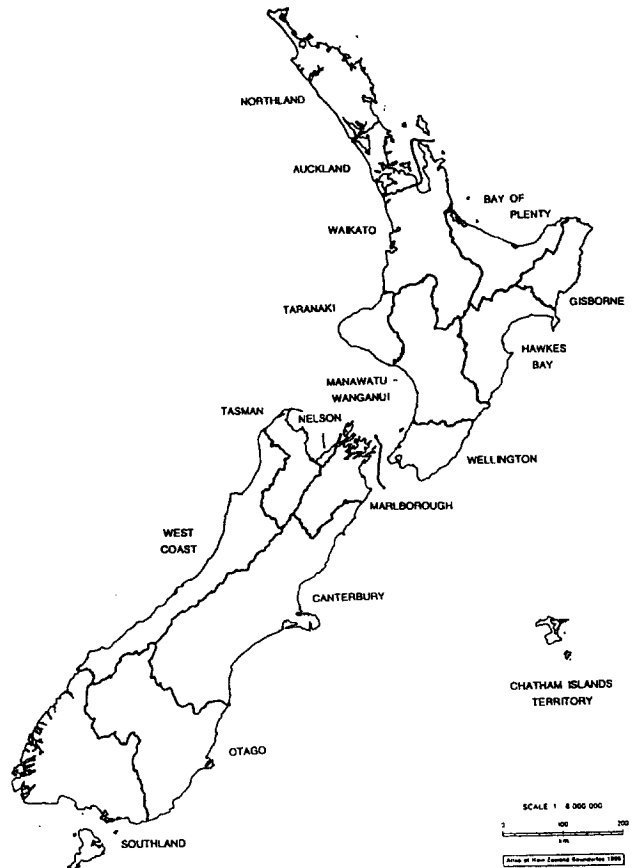
재 15,000 이상의 한인이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뉴질랜드로 이민은 한인의 90%이상은 오클랜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민자의 증가와 더불어 뉴질랜드에 이주해 온 한인들의 생업도 다양화되고 있다. 한인의 생업 중에서 1992년에서 1997년까지 가장 빠른 성장을 한 업종은 데어리 식품점, 관광 여행사, 부동산 중개업, 식당이고, 그 다음으로 주택설비, 수리업, 은행, 증권, 보험업, 건강식품점, 유학원, 영어교육원, 이·미용업 등이다. 한인이 운영하는 가장 많은 업종으로는 식당이 42개, 데어리 식품점이 45개, 관광·여행사는 42개, 부동산 중개업이 39개로 나타나고 있다(윤홍기·임석희, 1997). 한편 뉴질랜드의 한인의 생업으로 윤홍기·임석희의 연구에서 조사되지 않은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뉴질랜드 한인의 농업분야에서 성장과 이유를 중심으로 한인 농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울러 뉴질랜드의 농업환경의 영향이 한인들의 농업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농업 통계를 바탕으로 뉴질랜드의 농업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기술하고 그 다음 한인의 농업의 특성을 분석하며 끝으로 한인의 농업에 대한 특성을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한인 이민자들의 개개인의 이동 동기와 속성 개별적인 적응형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설문 형태의 아닌 면담과 관찰을 통해서 조사하였다. 한인 농업의 전체적인 성격 파악(경작 규모, 작물 형태, 영농방법 등)은 한인 농민회의 자료와 한인 농업가구의 집중적인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인 농업의 가구 단위의 속성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2) 뉴질랜드 농업개관

뉴질랜드는 IMF 이전에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이었다. 우리나라는 주로 원자재(목재, 알루미늄, 가죽, 육류 등)를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고, 자동차, 합성수지, 전기기기, 철강 등의 공산품을 수출하였다(김종욱, 1998). 뉴질랜드는 연중 고른 일사량과 강수를 배경으로 농업이 국가의 주요 산업으로 발달해 왔으며, 현재 농업제품은 GDP면에서 10% 정도에 불과하나 뉴질랜드 총수출에서는 60%

를 차지하고 있다(MAF, 1994). 전통적으로 농업은 양과 소의 사육에 의한 육류, 양모, 낙농제품, 원피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곡물은 내수용으로 주로 재배된다. 원예업은 내수용으로 재배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에 점차 수출품으로도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대의경제정책연구원, 1996).

육류와 양모생산을 위한 토지이용은 주로 완만한 구릉지에서 이루어지고, 반면에 낙농업, 원예업, 곡류 생산은 저지대와 해안 평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뉴질랜드 농업에서 토지이용은 그림 1의 지역 구분에 따라 표 1과 같이 정리되고 있다. 1996년 6월 현재 1,655만 헥타이며, 그 가운데 북섬은 7,988만 헥타, 남섬은 8,558만 헥타가 농목축 경작



자료 : Atlas of New Zealand Boundaries 1996

그림 1. 뉴질랜드 지역구분

지, 원예농업, 외래목 재배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중 복섬의 경우 73.2%가 농목축 경작지로 이용되고, 15.6%가 외래목 재배지로, 1.0%가 원예농업으로, 10.1%가 기타 용도로 이용된다. 남섬에서 토지이용은 농목축 경작지로 86.6%, 외래목 재배지로 5.1%, 원예농업으로 0.5%, 기타 용도로 7.7%가 이용되고 있다. 남섬이 북섬에 비해서 농업용 토지가 더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토지이용 가운데 농목축 경작지가 매우 탁월하게 나타난다. 반면에 북섬에서는 외래목 재배, 원예 농업, 그리고 기타 용도는 북섬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Statistics New Zealand, 1998).

농업은 주로 영국인이 뉴질랜드로 이민한 19세기 후반기부터 지금까지 뉴질랜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이었다. 비록 오늘날 농업제품은 GDP에서 점하는 비율은 낮지만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

율은 어떤 산업보다 높다. 즉, 360만의 작은 인구를 가진 국내시장은 국가산업의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업상품(양고기 생산의 95%, 소고기의 78%, 낙농제품의 85%)의 판매는 거의 해외 수출에 의존하였다. 과거부터 1960년대까지 영국의 뉴질랜드 농업상품의 보장된 가격과 수입량에 힘입어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었다. 19세기 후반부터 영국으로 농업상품을 안정적으로 수출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 경쟁과 시장가격에 직면하지 않은 조건이 뉴질랜드 경제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1972년에 영국이 유럽공동사회(EC)에 가입함에 따라 농업상품의 영국으로 보장된 지위를 잃게 되자 수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 이후 뉴질랜드 농업과 경제는 국제시장의 경쟁에 직면하면서 수출을 위한 새로운 상품과 시장을 모색하게 되었

표 1. 뉴질랜드 지역별 농업용 토지이용

(면적단위: hectares)

지역	농가수	농목축경작지	원예농업	외래목재배	기타	전체경작지 <sup>1)</sup>
Northland RC	5,523	606,555	7,069	151,846	89,998	855,468
Auckland RC	5,033	220,869	11,107	40,332	28,587	300,895
Waikato RC	11,428	1,291,078	9,863	282,095	172,425	1,755,461
Bay of Plenty RC	5,169	286,300	12,795	222,793	100,442	622,329
Gisborne RC	1,338	507,696	7,552s	89,418s	78,590	736,490
Hawke's Bay RC	3,627	737,289	17,125	221,788	124,799	1,101,000
Taranaki RC	3,810	416,446	1,354	23,460	52,934	494,194
Manawatu	6,344	1,362,959	10,262	83,568s	120,470	1,609,691
Wanganui RC						
Wellington RC	2,243	421,818	2,212	41,180	41,934	513,146
북섬전체	44,514	5,851,010	83,904	1,243,583	810,170	7,988,675
Tasman DC	1,855	114,171	7,043s	83,568s	48,490s	267,428
Nelson CC	114	6,143s	89s	5,819s	2,842s	14,893
Marlborough DC	1,365	546,957	5,537s	55,945s	116,289s	698,815
West Coast RC	858	175,902	312s	27,297	181,361	385,746
Canterbury RC	9,139	3,121,323	17,847	87,590s	175,428s	3,406,299
Otago RC	3,789	2,279,339	4,671	90,877s	135,133s	2,487,441
Southland RC	4,368	1,117,658	1,036s	57,604s	56,525s	1,237,550
남섬전체	21,531	7,414,421	39,083	439,633	665,301	8,558,438
뉴질랜드 전체	66,045	13,265,431	122,988	1,683,216	1,475,479	16,547,113

자료: New Zealand Official Yearbook 1998, 1996

## 뉴질랜드 농업환경속에서 한인 농업의 성장

다. 아울러 뉴질랜드 정부는 농업생산의 증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농민의 소득을 보상하기 위해서 가격지지 제도를 도입하였다(Meijer, 1996; Le Heron and Pawson, 1996).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국제시장에서 재정을 차입하면서 점차 부채가 증가하게 되었다. 1984년에 노동당 정부는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가격지지제도를 철회하고 수출품의 경쟁성 제고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그 결과 뉴질랜드 농민들은 동식물의 재난과 최악의 기후조건을 제외하고는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거의 받고 있지 않으며, 다른 농업 생산국의 제품과 경쟁을 하며 세계경제의 경기와 가격형성에 따라 소득이 결정되고 있다. 또한 1970년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양모, 양고기, 소고기 생산의 비중은 감소하는데 비해 낙농제품, 과일, 채소의 생산은 증가하고 있다(Department of Statistics, 1994). 다음의 표 2는 농업생산의 변화를 농업형태에 따른 토지면적의 변화에서 잘 반영하고 있다.

1986년과 1996년 사이에 낙농업으로 분류된 토지이용은 45%증가를 보이고, 원예업은 같은 기간에 101%의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양과 소의 생산과 관련된 토지이용은 각각 22%, 11% 감소하였다. 낙농제품의 증가는 현재 양과 소의 수출보다 훨씬 많아 뉴질랜드 총상품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각각의 농산물에 대해서 위원회<sup>2)</sup>(낙농업의 경우에는 dairy

Blunden and Bradly, 1996). 한편 증가추세에 있는 원예작물은 전통적으로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으나 1970년대 이후, 특히 1984년 이래 국제시장에서의 가격과 시장 다각화의 결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Chaney, 2000; Wilson, 1994). 뉴질랜드 농업의 전망은 1995년에 출범한 WTO협정에 따라 각 국가에서 농업지원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 2. 한인 농업의 성장

### 1) 농업지역

뉴질랜드는 크게 유역 경계(water catchment boundaries)에 의해서 13개 지역(region)과 4개의 단위 구역(unitary authority)으로 나뉜다(Local Government Commission, 1996). 17개의 지역(regional council) 가운데 뉴질랜드에서 떨어져 위치한 챗햄 아일랜드 구역(chatham island territory)은 표 1과 표 3에서 남섬전체에 포함되었다. 그림 1에서 북섬(North Island)의 노스랜드(Northland)와 오클랜드(Auckland) 지역은 보통 해발 180미터보다 낮은 저지대로 양보다는 소의 방목이 많고, 원예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타라나키(taranaki)지역은 900미터의 고원으로 집약적인 낙농업이 행해지고 원예업은 북섬의 다른 지역보다 발달이 느리다. 마나와투-왕가누이(Manawatu-Wanganui) 지역은 전형적인

표 2. 농업형태별 토지면적의 변화

(단위 : hectare)

농업형태	1986	1996	변화(%)
낙농업	1,394,375	2,017,754	45
양	11,026,512	8,598,027	-22
소	1,616,087	1,438,048	-11
원예업	132,379	266,198	101
기타	3,841,943	1,959,281	-49

자료: Agricultural Statistics 1996, New Zealand

board를 예로 들 수 있다)가 설치되어 있고, 이 위원회는 각 농업상품의 구매와 생산농가의 해외마케팅과 판매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Moran,

구릉지에 낙농업과 양과 소의 방목이 이루어지고 1980년대 중반이후 부분적으로 보리와 밀과 같은 곡류가 생산되고 있다. 북섬의 중부지대인 와이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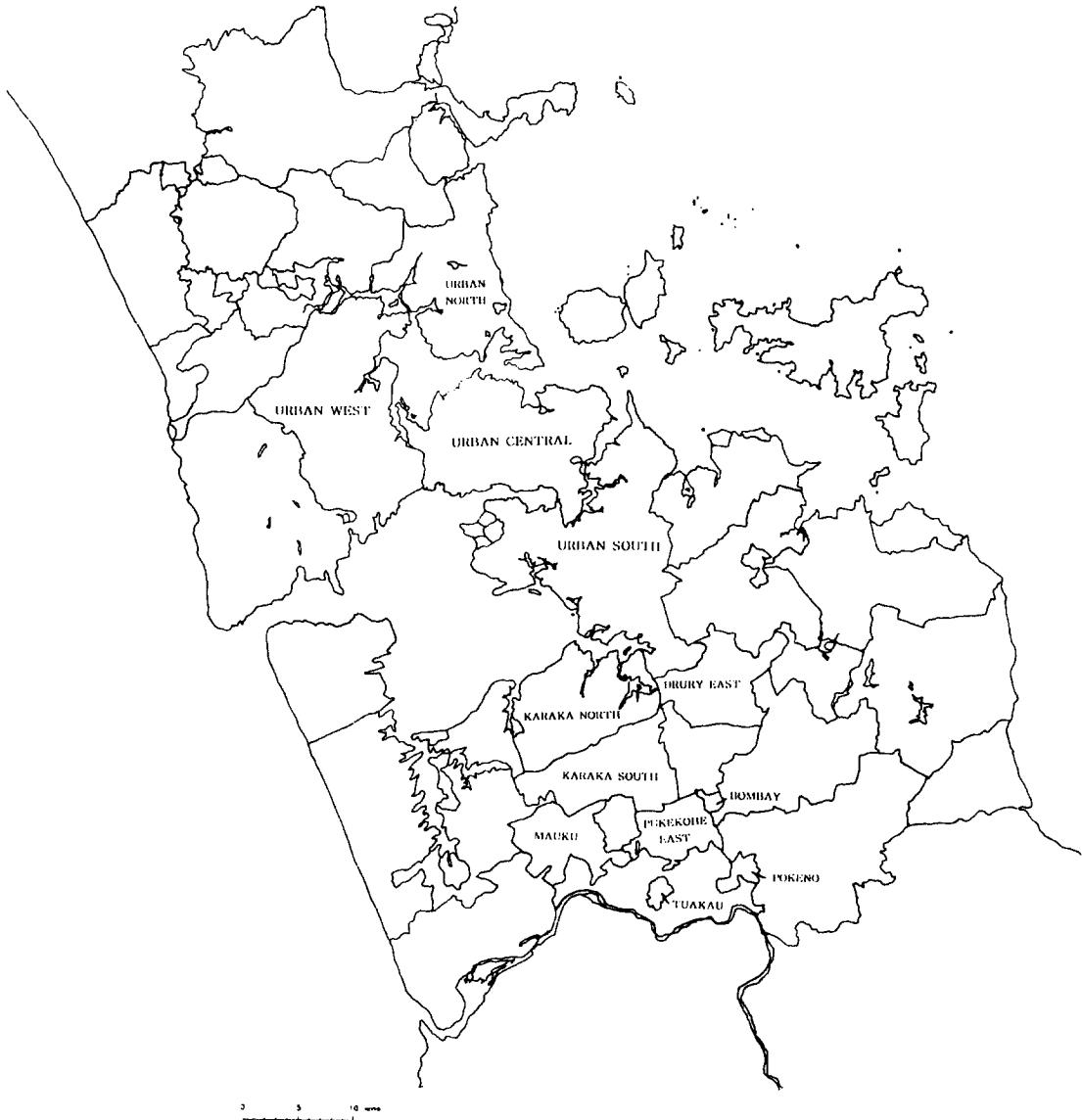


그림 2. 오uckland 지역의 주요 한인 농업지역

뉴질랜드 농업환경속에서 한인 농업의 성장

토(Waikato)와 베이 오브 플렌티(Bay of Plenty)지역은 집약적 낙농업이 발달하여 버터 생산이 활발하였으나 현재는 사슴사육과 원피를 위한 염소사육이 두드러진다. 키위푸루이트 생산이 오클랜드 지역과 더불어 매우 급격히 진전된 지역이다. 그외 열대성과일 역시 생산되고 있다. 동쪽해안 지역에 속하는 기스본(Gisborne)과 호키즈(Hawkes)지역에

인 이 6개 지역에 80농가구가 분포하고 있다. 우선 전체 농민가운데 농업을 시작한 시기를 1990년 이후 3단계로 나누어 보면 지난 1990년부터 1992년 사이에 뉴질랜드에서 농업에 종사한 가구는 8가구이며, 1993년에서 1995년의 기간에는 17가구의 증가를 보이고, 1996년에서 1998년 사이에는 56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한인 농

표 3. 한인농업가구의 성장

	1990~1992	1993~1995	1996~1998	총계
Waiuku	1	2	11	14
Pukeko	1	2	11	14
Tuaku, Pokeno, Bombay		4	7	11
Drury, Papakura, Karata	4	5	6	15
Mangare		1	9	9
North and West Auckland	2	3	12	17

자료: 현지조사

서는 제공에서 다소 평지가 나타나고, 구릉지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북섬의 동안 해안 지역에서는 주로 양과 소의 목축업이 탁월하게 나타난다. 또한 경작지에 소나무가 광범위하게 경작되고 있다(Local Government Commission, 1996).

오클랜드 지역은 오클랜드 시, 노스쇼어(North Shore), 마누카우(Manukau) 시, 와이타케레(Waitakere) 시와 파파쿠라 구역(Papakura District), 로드니 구역(Rodney District), 프랭클린 구역(Franklin District)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인 농업의 지역 분포는 남섬에 흩어져 있는 5가구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오클랜드 지역에서 집중되어 있다. 한인 농민회에서는 현재 편의상 6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6개의 지역 분류는 뉴질랜드의 행정적인 기준에 의하면 오클랜드 주변의 농촌 지역명이다(그림 2).

한인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6개 지역은<sup>3)</sup> 와이우쿠(Waiuku), 푸케코(Pukeko), 투와쿠·포케노·봄베이(Tuaku·Pokeno·Bombay), 두루리·파파쿠라·카라타(Drury·Papakura·Karata), 망제리(Mangare), 노스 및 웨스트 오클랜드(North and West Auckland)이다. 오클랜드 시를 중심으로 주변지역

업의 증가율이 점점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오클랜드 시에서 한인의 생업과 비교해보면 가장 많이 나타난 식당(42개)이나 식품점(45개), 관광·여행사(42개), 부동산 중개업(39개)보다 훨씬 많은 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한인 농업의 지역분포와 농업을 시작한 시기는 표 3과 같다. 분포의 주요 특징은 농업이 오클랜드 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노스 및 웨스트 오클랜드(North and West Auckland)를 제외한 5개지역은 오클랜드 지역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오클랜드 남쪽 지역은 뉴질랜드의 근교농업지대(Willis, 1991)로 널리 알려진 지역인데 한인들이 초기에 농업을 시작한 곳도 주로 이곳이다. 비록 1990년에서 1992년 사이에 두루리·파파쿠라·카라타 지역에서 4가구가 농업에 종사하였고, 또한 1990년에 가장 먼저 이민후 농업을 시작한 가구도 바로 이 지역에서 발견된다. 그 후 몇 년이 지나서 점차 인근에 있는 6개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농업가구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6개 지역에 한인 농업의 집중은 6개 지역 모두 오클랜드 시와는 30~45분정도의 거리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인들이 오클랜드에 도착 후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한인 농민회가 형성되기 전에 이미 한국인들이 주로 출석하는 교회에서 한인들간에 정보가 이루어져 왔고, 실제 농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중개 소개업자의 권유였다고 한다. 따라서 초기 이민자들의 직업의 선택은 뚜렷하게 개별적인 의사 결정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 우리나라의 해외 이주가 대부분 연고 초청에 의한 것이어서 직업 선택 역시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뉴질랜드 이민과 최근의 지식층을 중심으로 한 이민자의 직업선택은 본인의 의사결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한인의 농업선택과 민족

1990년대의 뉴질랜드의 농업에 종사하는 한인 이민자들은 고학력, 고소득층에 속하는 이민자들이었다. 혈연에 의한 연쇄적인 가족이민이나 이민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 직업 중심의 이민과는 달리 뉴질랜드의 이민은 학력, 경력, 연령, 재산정도에 의한 점수제에 근거한 이민이고, 이민자들은 자녀들의 바람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와 모국에서의 사회적 환경보다 나은 삶의 질을 동경한 이주여서 일정한 사회계층 이상에 속하는 사람들일 것으로 여겨졌다.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한인들도 학력은 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들이었다. 한국에서의 생활 수준과 소득은 중산층 이상이었다. 먼저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가구주의 연령을 살펴보면 30~34세의 연령대가 1가구, 35~39세가 4가구, 40~44세가 20가구, 45~49세가 17가구, 50~54세가 26가구, 55~59세가 7가구, 그리고 65세 이상의 가구주는 1가구로 나타난다. 연령의 분포에서 40대와 50대가 전체가운데 87.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한국에서 의사, 교수, 약사, 교육공무원, 대기업 간부, 외교관 등의 전형적인 화이트 컬러층 직업을 소지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한국의 이민자들은 외형적으로는 뉴질랜드 정부가 인정하고 고급인력들이다. 대학을 졸업해야 하고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꾸준히 일을 했었어야 하며 재산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들이다.

IMF 후의 최근 30대가 중심이 된 이민연령층보다는 조금 더 연령이 높은 세대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직업선택의 결정에 관하여 이민을 한 후 농업에 종사하기로 결심한 경우가 많았다. 주거지와 직업의 선택에 가구주 본인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그 배경에는 위험부담을 안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보다는 안정적인 사업체로서 농업을 인식하게 되었다. 주변 한인들의 초기 영농에서의 성공적인 경험이 1996년 이후에 농업이 상당히 급증한 원인이 되었다. 영농에 대해서는 문의한이었지만 농업을 선택한 이유 중의 하나는 농장을 구입하면서 거기에 딸린 주택을 동시에 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1-2년 정도의 사업투자를 모색하다가 농업에 투자하였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지다가 농업으로 전환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것은 교민들이 구입한 농장은 평균 3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1억 6천만원~2억 7천만원)로 거의가 3베드룸의 주택과 유리온실이 딸린 곳이다. 위의 6개 지역에 한인 농업의 집중은 이 지역들이 오클랜드 시내와는 자동차로 20분에서 4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서 한인들간의 교류, 오클랜드 시의 편의, 교육기회 등에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과 아울러 전원 생활의 즐거움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농업에 종사하면서 얻게되는 소득은 연간 수만 달러로 다른 업종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 IMF 사태이후 타직업, 특히 한국과 관련된 관광 등이 상당히 위축되었던 실정이었으나 그들은 그러한 어려움은 없었다고 한다.

비교적 짧은 시기에 성공적인 정착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 한인 농업가구중 95%(76가구)가 한국에서 농업의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30% 정도만이 농업에 대해서 약간의 정보를 가진 후 농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는 관광, 친지 방문, 혹은 자녀 영어교육 등으로 뉴질랜드를 방문하면서 가지게 된 정보에 의해서 이민 전에 농업을 새로운 직업으로 염두에 둔 것이었다. 뉴질랜드로 이민 후 대체로 90%이상(73가구)이 이민후 1~2년의 직업 탐색기간을 가진 뒤에 농업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그들이 비교적 단기간에 농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현

지농업의 체계적인 환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가장 많은 한인들이 종사하고 있는 토마토 재배는 재배 자체만 관심을 기울이면 될 정도로 농업이 그들에게 유리했다는 것이다. 이미 판매를 위한 포장과 운반 그리고 판매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농업여건이 갖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토마토를 수확한 이후의 과정은 대부분 팩킹 하우스(포장회사)에 일임하고 있다. 포장회사에서는 토마토의 품질을 선별해서 포장 후 물건을 전량 수거해 판매까지 해주고, 그 다음 시세에 따라 수익금을 입금시켜 준다. 따라서 재배 과정에만 전력하면 되는 형편인데, 대개 한인들의 경우 한국에서 온실 재배를 가끔씩 보기만 했을 정도로 직접 재배한 경험은 없지만 재배에 성공하였던 것은 뉴질랜드의 농업지원 시스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재배기술, 토양관리, 병충해 문제 등에 대해서 수시로 기술지원센터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소규모 농지를 판매한 뉴질랜드 농업인으로부터 직접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농업에 대한 기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한인에게는 단시간에 농업에 적용할 수 있었던 좋은 여건이었다.

가족 노동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농업 연구의 논란으로 남아 있지만 가구원 간의 화폐 지불이 없는 노동관계를 가족노동이라고 프리드만(Friedman, 1980)은 정의하는데, 뉴질랜드는 가족 노동이 농업의 자본주의 경제와의 관련속에서 비중이 높은 국가이다(Moran, Blunden, and Greenwood, 1993). 뉴질랜드의 소규모 농지에서 가족노동은 파트타임의 노동력 이용의 활용도가 높지만 한인들의 농업은 대부분 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취미 또는 여가로 보기는 어렵다. 한인들은 육체적으로 고되고 동일한 일의 반복인 장시간의 농업 특히 집약적인 원예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하루 중의 많은 시간을 노동에 투입하여야 하므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이 점은 다른 직업을 가진 초기 이민자들의 사정과 다르지 않다. 일부 농민은 좀더 경제적 여건이 좋아지면 땅을 더 많이 확보하여 뉴질랜드 인처럼 방목을 원하기도 한다. 가족 노동이기는 하지만 자녀들도 틈틈이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일이 많은 시기에는 파트타임으로 풀리네시안이나 한국에서 어학 연수를 온 학생들을 고용한다.

현재 한인 농업인들은 농업을 자녀들에게 승계시키기를 바라지 않고, 자녀들도 승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 3. 토지이용

#### 1) 오클랜드 지역 토지이용과 규모

본 연구에서는 뉴질랜드에서 한인농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인 오클랜드 지역의 토지이용을 살펴보자 한다. 그러나 통계 자체의 한계점 때문에 뉴질랜드의 실내 재배 원예업의 경작면적을 조사함으로써 오클랜드 지역의 원예업의 비중을 보고자 한다. 표 1에서 살펴본 바처럼 농업용 토지이용에서 원예농업의 비중은 뉴질랜드 농업에서 여전히 작다. 그렇지만 실내 원예농업만을 비교하여 보면 오클랜드 지역은 북섬과 남섬 전체에서 매우 비중이 높은 것을 표 4에서 볼 수 있다. 북섬만을 기준으로 보면 고추와 멜론을 제외하고는 오클랜드 지역의 원예업 비중은 매우 높다. 토마토의 경우는 북섬전체의 약 61%를 생산하고, 오이는 52%, 콩은 78%, 포도는 49.3%, 꽃은 40%, 그리고 기타 47%를 오클랜드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다.

오클랜드 주변 농촌에서 나타난 한인 농업의 성격을 뉴질랜드 농업환경 속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농지의 규모에 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농지 규모는 농촌 사회와 경제에서 변화의 주요 지표이다. 그 규모는 농촌 환경과 농촌 변화 과정의 성격을 잘 나타내어 준다. 뉴질랜드에서 197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걸쳐 일어난 농업규모의 변화는 사회 전체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농업은 제 4기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1984년의 개혁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1984년의 개혁정책으로 육류(양, 소)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이 철회되고, 농민이 농촌은행(Rural Bank)에서 싼 이자 부담의 대출과 생산자 위원회의 예비 은행 안정화 기금(Reserve Bank stabilization accounts)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달리는 자유 변동에 맡겨지고, 이자율 조절의 기능이 없어짐으로써 농민은 갑자기 시장의 힘에 노출되었다(Moran, 1997). 아울러 이 시기는 원예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소규모 농지(smallholdings)



표 4. 실내재배 원예업의 경작면적

(단위 square meters)

지역	토마토	오이	콩	고추	멜론	포도	꽃	기타
Northland RC	68,046	3,606	2,844	17,718	5,988	3,780	139,271	32,529
Auckland RC	425,622	25,900	23,928	13,309	5,150	16,740	340,464	50,920
Waikato RC	37,746	1,255	625	7,805	.	11,110	72,315	4,726
Bay of Plenty RC	71,836	1,780	1,036	23,520	400	845	151,837	13,083
Gisborne RC	5,200	.	.	.	.	453	2,973	.
Hawke's Bay RC	48,556	3,552	1,016	4,932	.	14	29,280	350
Taranaki RC	5,610	1,164	.	425	9,160	80	28,181	405
Manawatu- Wanganui RC	17,344	5,084	966	5,667	3,160	822	66,484	2,889
Wellington RC	19,107	7,234	280	984	.	110	10,073	3,300
북섬전체	699,067	49,575	30,695	74,360	23,858	33,954	840,870	108,199
Nelson- Marlborough RC	102,715	12,335	1,000	5,760	135	706	620	31,781
West Coast RC	1,052	550	.	410	.	100	.	108
Canterbury RC	108,681	7,218	1,431	7,301	200	20,563	3,244	94,038
Otago RC	24,964	980	.	1,290	160	1,761	680	16,199
Southland RC	1,639	524	.	.	.	2,006	.	14,460
남섬전체	239,051	21,607	2,431	14,761	495	4,544	156,586	25,136
뉴질랜드 전체	938,118	71,182	33,126	89,121	24,353	38,498	997,464	133,335

자료 : Agriculture Statistics 1990, New Zealand

의 수요 증가, 영농 체계의 입지에서 변화, 지방정부의 재구조화, 도시 확장 등에 의해서 농업의 규모는 영향을 받았다.

뉴질랜드의 농지규모는 신개척 국가인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더불어 큰 편에 속한다. 뉴질랜드의 토지는 원주민 마오리족에 의해 소유된 땅에서 유래하며, 정착과정에서 보다 많은 사람이 정착할 수 있도록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그 규모를 제한하였다. 그 결과 1876년의 평균 농지규모는 430 헥타에서 1900년대의 초기에 250 헥타로 줄었다. 다시 1950년대 중반에는 190 헥타로 계속해서 줄었다. 1960년대에는 평균 농지규모가 300 헥타의 크기로 증가하기도 하였다(Smit, 1975). 그 당시 농촌 은행의 융자가 농장 확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방목의 경우에 보다 많은 가축의 수는 규모의 생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 뒤 1970년대 및 1980년대에는 소규모 농지 시장이

활성화되어 토지분할과 자산 매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농지 규모는 1971년에 275 헥타에서 1989년에는 225 헥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Department of Statistics, 1994). 농지규모는 지역별로 뚜렷이 차이가 있는데, 특히 대체로 남섬이 규모가 크다. 북섬에서는 주로 낙농업 또는 원예업이 차지하고 있다(Fitzharris and Endlicher, 1996). 그 가운데서도 오크랜드 지역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인접한 지역에서 소규모 농지의 출현으로 농지 규모는 다른 뉴질랜드 지역에 비해서 작다. 도시 지역과 지방 중심지에 인접한 카운티에서 평균 농지규모의 감소는 197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까지 농지규모가 약 20% 감소하였다. 이 같은 감소는 주로 원예농업을 위한 토지분할과 농촌의 생활 양식을 선호하는 도시 거주자들의 주거용 용지 때문이었다(Ian and Grant, 1998).

농촌지역에서 농지분할의 규모를 최소 10 에이

뉴질랜드 농업환경속에서 한인 농업의 성장

커(4.4 헥타)로 제한하는 법령으로서 1946년의 토지 분할에 관한 카운티 법령(the Land Subdivision in Counties Act)이 있었으나, 1960년대까지는 농지분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즉 소규모 농지를 농업경제 단위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연구결과에 의해서 소자작 농지도 충분히 국가 경제와 그 지방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소규모 농업은 취미 삼아 하는 농업과는 다르다. 오히려 작은 규모의 농업이 집약적이며 효율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Neville, Moran, and Rankin, 1980; Fairwather, 1993). 이 같이 오클랜드 시 교외의 소규모 농지에서 농업활동이 부각된 것은 1970년대 중반부터이다. 소규모 농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교외지역에 대한 삶의 기대와 소규모 농지 농업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도시에서 교외로 인구 이동이 활발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다. 1986년에서 1991년 사이에 오클랜드 주변지역으로 이동의 70%는 오클랜드 시에서 연유하면서, 오클랜드 지역에서는 1988년에서 1997년 사이에 소규모 농지의 수는 34,680개에서 69,993개로 증가하였다. 오클랜드 지역에서 뉴질랜드인의 평균적인 소규모 농지(보통 10헥타 미만의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의 방식을 고찰하면,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의 68%는 현재의 농지이용에서 그들 소득의 10% 이하를 얻는다. 이들은 파트 타임으로 영농을 하는 사람들이다. 5분의 1(18%)은 소득의 90%를 풀타임 소규모 농지에서 가진다. 10~90% 사이의 소득을 얻는 사람은 단지 14%정도로 샘플 조사에서 밝히고 있다. 한편 소규모 농지에서 75% 이상을 얻게 되는 농민 가운데 가축사육(거의 대부분 양과 소)이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원예업(시장 원예, 과수, 포도재배)이 20%, 그 외에 원예업과 목축업을 겸한 농업이 12%, 말 방목이 12%, 양계업 3%, 기타 12%로 나타나고 있다.

2) 한인 농업의 토지이용과 규모

반면 한인 농민들은 평균적으로 0.54에이커(24,566sq. feet)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가장 넓은 토지는 1.06에이커이며 가장 적게는 0.26에이커까지 나타나지만 뉴질랜드의 평균 소규모 농지와

비교하여도 매우 적은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5는 한인들의 지역별 농지의 규모이다. 지역별로는 그 농지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실제로 한인 이주자들에게는 오클랜드 시 지역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노스 및 웨스트 오클랜드 지역은 토지가격이 다른 지역보다는 비싸긴 하지만 평균 농지의 규모를 타지역과 비교해 볼 때 별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투와코·포케노·봄베이 지역의 규모가 약간 작은 것은 다른 지역보다는 오이, 상추를 재배하는 농가가 다소 많다는데 기인한다. 토마토 농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규모가 좀 더 크고 소득도 많지만 그 만큼 인건비의 지출도 많아서 실제 소득

표 5. 지역별 한인 농업의 규모 (단위 acre)

주요 한인 농업지역	평균 농지 규모
Waiuku	0.50
Pukeko	0.54
Tuaku, Pokeno, Bombay	0.46
Drury, Papakura, Karata	0.53
Mangare	0.70
North & West Auckland	0.50

자료 : 현지조사

은 비슷한 편이다. 한인 원예업의 경우 작목의 종류는 매우 적다. 원예업이라고 해도 대부분 한 두 작물에 치우치고 있다. 80가구 가운데 54가구, 즉 67.5%는 토마토 농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상추를 전문으로 하는 농가가 7가구, 한국 야채(고추, 배추, 무우 등)가 6가구, 양계업이 4가구, 오이 4가구, 꽃 재배가 3가구, 피망 1가구, 타조 농장이 1가구로 조사되었다. 어떤 가구에서는 다른 작물을 같이 경작하기도 하나, 원예업의 분포는 토마토 농업이 압도적이다. 토마토 농업의 비중이 압도적인 것은 지역별로 살펴보아도 큰 차이는 없다. 토마토 농업이 각 지역 별로 차지하는 %는 다음과 같다. 와이우쿠 58%, 푸케코 60%, 투와코·포케노·봄베이 50%, 두루리·파파쿠라·카라타 60%, 망제리 100%, 노스 및 웨스트 오클랜드에서 7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토마토재배에 집중하

여서 현재 오클랜드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마토 공급량의 10%이상은 한인 농업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인에 의한 토마토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시세에 별로 영향이 없는 것은 기존의 뉴질랜드인에게서 인수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격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한인들의 농업 증가는 대개 뉴질랜드 노년층의 소규모 농지 계승의 어려움에 따른 처분과 맞물려 있다. 이점은 1970년대부터 교외화에 더불어 소규모 농지에서 하던 원예업을 뉴질랜드 인들이 신체적으로 노쇠하여 농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또한 대규모 농장의 승계와는 달리 소규모 농지의 승계의 어려운 점 때문에 농지를 판매 하고자 하는 것과 더불어 한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의 필요에 따른 농지의 수요 때문에 한인 농업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이것은 도시내부 구조이론에서 설명하는 생태학적 해석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결속력이 강한 이민 집단의 전통적 농업활동에서는, 다작물 재배의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다작물 재배를 하면서 농업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이민 이전에 재배하던 작물을 여전히 수용하면서 서서히 새로운 사회에서의 농업형태로 변화해간다고 설명한다(Baltensperger, 1983). 단일 작물 재배의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대 수익을 지향하는 농민의 행동으로 이해하여 왔다(이상을, 1996). 그러나 한인 농업인들은 사회, 문화가 다른 환경속에서 거주기간이 짧고 한국에서도 농업에 거의 종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작물 재배를 추구, 즉 이론상의 최대수익 지향의 농업을 택하게 된 것은 그들의 사회적 및 경제적 능력에 따른 정보 이용과, 그리고 현지의 농업환경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 결과 한인 농업은 단기간에 뉴질랜드 소규모 농업의 원예업 시스템에 흡수되었다.

#### 사례 1.

오클랜드 시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에서 전형적인 가족노동을 하는 K씨는 한국야채(고추, 상추, 배추, 무, 부추, 가지, 깻잎)를 재배한다. 11년전에 이민 와서 90년에 처음 농업을 시작하였고, 한국에

서는 자동차 부속품 가게를 하였다. 처음에 이민와서 모델에 머물 때 농업을 하기로 하였으며, 그 후 네덜란드계 사람에게서 0.54acre의 백합 꽃농장을 인수받았다. 그러나 병충해 등으로 농업에 실패한 적이 있다. 뒤에 토마토재배로 비교적 성공하고 팔았다. 다시 카네이션과 안개꽃재배를 3년간 하다가 98년에 15acre크기의 현재 위치에서, 목축업을 시도 하였으나 실패하고 이곳을 개발하여 한국야채를 재배하는데, 여전히 참외 접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약품사용과 질병에 관해서는 자문을 받고 있다. 현재의 토지에서는 연작의 피해가 있다. 힘이 들어 땅의 절반 이상은 팔 예정이다. 자녀는 2명이다. 한명은 오클랜드 시에 있고 또 한 자녀는 대학교에 재학중인데 바쁠 때는 도와주고 있다. 바쁠 때는 노동력(연변교포)을 고용한다. 판매는 경매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주로 한국식당과 슈퍼마켓에 하고 있다.

#### 사례 2.

P씨는 이민 5년째이며, 이민 후 2년뒤부터 농업에 종사하기 시작했다. 집은 어차피 구해야하고, 또 직업 역시 구하기 힘들어 농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였다. 농업은 주로 상추를 온실에서 재배하고 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경제성은 0.26acre 인 것 같다. 현재 0.40acre를 하고 있으며, 토마토는 상추보다는 연 15만불 소득이 가능하고 상추는 10만불의 소득이 되나 10%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1년에 7~8만불의 소득을 가진다. 규모를 크게 해도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별로 남지 않아 현재의 규모가 적당하다고 본다. 농장 인수·인계 시에 6개월 정도 전 농장주로부터 교육을 수시로 받았다. 뉴질랜드에서는 소위 협동조합이 조절능력을 가지고 있다. 감자, 양파, 사과, 계란 등은 조합에 가입하면 쿼터를 배정 받게 된다. 그러나 야채는 그러한 기구가 없다. 또한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팔로가 없을 수도 있다. 자녀의 교육에서는 무엇보다도 취업이 큰 문제다. 즉 은행의 경우는 보수가 낮고 대기업은 거의 없는 편이다. 공무원 진출은 매우 어렵다. 뉴질랜드 인들도 해외진출을 많이 한다. 농약 또는 병충해 방지역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농기술 센터에서 적절히 지도해주어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다. 온실농업은 한국에서 보아서 쉬운 편이다. 축산은 규모가 너무커 부담이 되나 자녀가 크면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뉴질랜드의 기후 조건 때문에 건조 준비 등이 별로 없어 여유가 있을 것 같다. 폐독(목장내 구획) 관리만 잘해주면 휴가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 300마리 정도면 연 15만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작물의 판매는 경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상추는 토마토가 온실난방인데 비해 비난방 온실재배가 이루어지며 연중 생산이 가능한 편이다. 그러나 현재 불만은 없으나 온실 일이 많아서 휴가를 갖기가 힘들다. 판매는 주로 남자들의 일이며 포장과 토마토를 따는 것은 가족공동의 일이 되고 있다. 농사가 가족단위 이상을 넘어가면 인건비 때문에 적절한 규모가 안된다. 뉴질랜드 거주 한인들은 독자적인 시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예로서 중국인(250가구정도)은 독자적인 시장 망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온실재배의 규모는 한국인과 비슷하나 노지에 더 많이 재배하고 있다.

### 사례 3.

A씨는 1994년 뉴질랜드 여행을 통해서 이민하기로 하였고, 이민 년도는 1995년이고 부인이 현지에 남아서 이민 관련 정보를 모으다가 당시 그곳에 이미 이민 와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친구를 통해서 농작물을 결정하였다. 본인은 한국에서 교육공무원으로 1년 더 근무하다가 1996년에 바로 농업에 종사하였다. 농지의 선정에는 한국인 부동산 소개업자의 소개로 토마토 농장을 구입하였다. 현재의 규모는 0.62acre이고, 이웃 kiwi(뉴질랜드인의 속칭)의 지도를 많이 받는 편이다. 그리고 영농 지도원이 있어 농업에 필요한 정보는 비교적 잘 받을 수 있다. 영농은 대개 가족농이 주이고 2~3일에 한번씩 파트타임으로 남태평양계 사람이 일을 한다. 또한 한국에서 휴학생이나 복학전의 학생이 단기간 체류하면서 일하기도 한다. 기술지원은 정부에서 하지만 아직도 분석의 결과 자료를 읽기가 곤란하다. 작물의 품질 선별은 팩하우스에서 한다. a씨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토마토와 함께 팩하우스에 보내었으나 지금은(2년 뒤) 자신의 상품만을 보내고, 그 다음 경매에 넘겨진다. 다른 작물은 현재 기

술 문제 때문에 재배하기가 힘들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경험은 부족해도 이 곳 전문가의 도움으로 매우 합리적으로 영농이 가능하다. 현재 작목과 규모에 만족한다.

## 4. 결론

본 연구는 뉴질랜드에서 한인들의 농업에 종사하게된 배경과 그들의 적응, 그리고 현지 농업환경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뉴질랜드의 주산업은 농업으로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영국을 상대로 한 보장된 시장의 확보로 부유한 국가였으나 영국의 EC 가입과 더불어 경제기반이 약화되어 갔다. 따라서 뉴질랜드 정부는 농민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일부 농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농민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심각한 재정적자에 빠져들게 되자 농업부문에 대해서 거의 재정지원이 없는 제도를 통해서 바로 국제시장의 경쟁에 처해지자 농업분야는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또한 1960~1970년대에 규모의 경제에 바탕을 둔 농업이 장려되었으나, 점차 소규모 농지가 효율적이며 충분히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대두되면서 소규모 농지가 활성화되었다. 소규모 농지를 많이 이용한 원예업은 비록 농업에서 비중은 낮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소규모 농지에서 농업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일어난 도시에서 주변지역으로 인구이동과도 관련이 있다. 점차 전원생활을 희망한 사람들이 교외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부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소규모 농지 농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 접어들면서 소수이기는 하지만 원예업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농지에서 가족영농이 힘들고, 신체적으로 은퇴시기에 접어든 노인들은 농지를 더욱 분할하여 판매하게 되었다.

한편 뉴질랜드로 이민 온 한인들은 국내 인구이동과는 달리 한국에서 직업, 경력, 학력이 거의 이용되지 못하면서 전혀 다른 사업을 모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농업에 종사하게 된 이민자들은 대개 1~2년 정도의 탐색기를 가졌다. 한인들은 직업과 동시에 거주지 마련이 가능한 농업을 택함으로써 이전의 국내에서의 개인 경험과는 무관한 새로운 직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농업에 종사하는 한인들

은 가장 오래된 가구는 10년이지만 상당부분이 최근 3~4년전부터 농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3~4년 전 이민자들은 현지에 도착한 후 비교적 안정적인 정착을 한 일부 농업가구에 대한 정보와 현지 뉴질랜드 인의 소규모 농지 판매를 통해서 농업에 종사하였다. 그들의 토지이용은 현지 뉴질랜드 인이 판매이전에 하던 원예업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전체 뉴질랜드 인의 평균 경작지와는 비교되지 않는 매우 작은 규모의 토지를 가지고 온실 농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민자들이 비록 한국에서 농업의 경험이 전혀 없다시피 하지만 비교적 만족스러운 정도의 직업을 갖게 된 것은 뉴질랜드의 농업환경이 비교적 그들에게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즉 일정기간동안 농업 지식의 전수와 농업관련 기관으로부터의 농업기술의 지속적인 지도에 의해서 단기간에 한인사회에서 농업이 주요 직업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단기간에 적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인들의 고향력·중산층의 적극적인 정보의 활용에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이주 결과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뉴질랜드의 한인 농민을 사례로 그 성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뉴질랜드로의 이민은 대부분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소수 민족 사업체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한국인 이민자 수 또는 관광객 수에 그 영업성이 좌우될 정도로 한국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 결과 IMF 사태 이후에 거의 모든 한국인의 생업은 큰 타격을 입었고, 사업자 수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이에 비해 농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은 본국의 경제와는 관계없는 뉴질랜드의 경제에 흡수되어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였다. 끝으로 한인 농업은 급속한 이민자의 생업, 자녀교육, 생활 환경, 도시로 접근 등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로 성장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註

1) 표 1의 통계는 1998년도 New Zealand Official Year-book을 이용하였으나, 부분적으로 s가 표시된 부분은 그 해의 통계에 대한 신뢰가 낮아서 빠져 있다. 따라

서 이 부분은 1996년도 New Zealand Official Year-book의 자료로 표 1이 정리되었다.

- 2) 농업제품 가운데 수출지향의 농업의 유형은 각각 생산자 마케팅 위원회(Producer Marketing Boards)가 조직되어 생산담당 농민과 밀접하게 결합하여, 정부를 대신하여 수출관련 규제와 통제의 업무, 상업활동(구매, 가공, 저장, 그리고 생산품의 마케팅과 분배), 산업지원(기술적인 자문활동, 연구 등)에 이르는 농민과 결속력이 매우 강한 조직으로써, 뉴질랜드에서는 Dairy Board, Wool Board, Meat Producer Board, Kiwifruit Marketing Board, Apple and Pear Board 등이 있다.
- 3) 한인 농업 6개 지역은 뉴질랜드 17개 지역(Regional Council)내의 구역(District)명과 부분적으로 일치하지만, 오히려 여기서는 그 지역 농촌 지명에 가깝다.

文獻

김영성, 1994, 뉴질랜드 대학의 지리학, *지리학연구*, 24, 12월호, 1-16.  
 김종욱, 1998, 뉴질랜드의 지형, *지리·환경교육*, 6(2), 51-69.  
 뉴스피플, 1999, *다시 쓰는 한민족 이민사*(연중 기획), 대한매일 NEWSnet.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뉴질랜드편람*.  
 윤흥기·임석희, 1997, 뉴질랜드 오클랜드지역 한국인의 생업 분석, *대한지리학회지*, 32(4), 491-510.  
 이상을, 1996, Agricultural Decision Making and Land Use, *국토계획*, 31(6), 275-286.  
 Baltensperger, B. H., 1983, Agricultural Change Among Great Plains Russian German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3(1), 75-88.  
 Chaney, P., and Sherwood, Kenneth., 2000, The resale of right to dwellings: a case study of migration and social change in rural England, *Journal of Rural Studies*, 16(1), 79-94.  
 Department of Statistics, 1994, *Agriculture Statistics*, Wellington.  
 Fairweather, J. R., 1993, *Smallholder Perception of the Rural Lifestyle*, Agribusiness

- & Economics Research Unit, Research Report No. 220.
- Fitzharris, B. B., and Endlicher, W., 1996, Climatic Conditions for Wine Grape Growing, *New Zealand Geographer*, 52(1), 1-11.
- Friedmann, H., 1980, Household Production and the national economy: concepts for the analysis of agrarian formations, *Journal of Peasant Studies* 7, 158-184.
- Ian and Diane Grant, 1998, *The Smallfarming Revolution: New beginnings in rural New Zealand*, Auckland, New Zealand: Penguin Books Ltd.
- Le Heron and Pawson, E., 1996, *Changing Places: New Zealand in the Nineties*, Auckland, New Zealand, Longman Paul Ltd.
- Local Government Commission, 1996, *Atlas of New Zealand Boundaries*, Wellington.
- MAF Policy Technical Paper, 1994, *Aspects of New Zealand's Experience in Agricultural Reform Since 1984*, MAF Policy Technical Paper 94/5, Wellington
- \_\_\_\_\_, 1985, *Agriculture in New Zealand*, MAF Policy Technical Paper, Wellington
- Meijer, Linda, 1996, *From subsidies to Diversity: New Zealand's Experience of Agricultural Reform*,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Wellington, New Zealand.
- Moran, W., Blunden, G., and Bradly, A., 1996, Empowering family farms through Cooperatives and producer marketing Boards, *Economic geography*, 72(2), 161-177.
- Moran, W., Blunden G., and Greenwood J., 1993, The role of family farming in agrarian chang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7(1), 22-42.
- Moran, W. 1997, Farm Size Change in New Zealand, *New Zealand Geographer*, 53(1), 3-13.
- Neville, Moran, and Rankin, 1980, *Rural Smallholdings in the Auckland Region*, vol 2., Auckland Regional Authority.
- Sinclair, J. G., 1971, The distribution system associated with the marketing of New Zealand's apple and pear crop, *New Zealand Geographer*, 27(1), 5-20.
- Statistics New Zealand, *New Zealand Official Yearbook* 1998, 1998.6.
- Smit, Barry, 1975,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Farm Enlargement in Northland, New Zealand, *New Zealand Geographer*, 31, 160-177.
- Wilson, Olivia J., 1995, Rural Restructuring and Agriculture-Rural Economy Linkages: A New Zealand Study, *Journal of Rural Studies*, 11(4), 417-431.
- \_\_\_\_\_, 1994, 'They Changed the Rules', *New Zealand Geographer*, 50(1), 3-13.
- Willis, Richard P., 1991, *Agricultural Change in New Zealand Since 1984*, Occasional paper No.2, Department of Geography,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 The Growth of Korean Farming in New Zealand Agricultural Environment

Sung-Ho Cho\*, Sang-Yool Lee\*\*

### Summary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of Korean Immigrants with New Zealand agricultural environment, their choice of agricultural occupations and adjustments. New Zealand, based on agricultural products in its economy, was one of the richest countries during the 1950s and 1960s because of its dependency in market to United Kingdom. Since 1971 when U.K joined the European Community, its economy was no more strong enough to support the living conditions in the 1950's and 1960's. Therefore, New Zealand Government initiated some programme to assist its farmers. Such supports resulted in severe financial problems of the country. Thus, reforms removing almost all support programmes has been proceeded after 1984. Though horticulture is still lower in New Zealand's ex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its growth has been remarkable. This was results due to the contribution of smallholdings, along with migration from city to urban fringe occurred during the 1970's and 1980's. In the 1990's it has been known that horticulture in the smallholding takes a hard works for old ages, who required further partitions their lands.

Meanwhile, the rapid growth of Korean immigrants to New Zealand in the 1990's has been occurred, and this study shows one or two

years periods in the search of job in case of Korean farmers. The most attractiveness in agriculture for them was that it provides simultaneously both jobs and housing. Korean farmers' land use succeeds previous owner's land use, and concentrates on green house agriculture cultivating mainly tomato and cucumber. The size of land is quite small and not comparable to New Zealand's average size, but a satisfactory levels are rather high and successful in evaluating themselves concerning current occupations, even though they have rarely experienced about agriculture before. Korean farmers attributes a high satisfaction to agricultural techniques learned from previous owners and a related support author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Korean farmers has been absorbed into New Zealand economy rather than Korean economy. Finally, it has been pointed that the growth of Korean farmers and agriculture in New Zealand is the results of complex factors such as occupations, children's educational opportunity, and the access to the city.

**Key Words** : Agriculture, Auckland, Korean Farmer, Smallholdings,

---

\*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atholic University of Taegu

\*\*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atholic University of Taegu